



“7년차 백업” 정진호(왼쪽·두산)에게 사이클링히트는 어떤 의미였을까. 7일 잠실 삼성전에서 역대 23번째 사이클링히트를 작성한 정진호는 “오랜 2군 생활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지만, 이번 행운을 계기삼아 이전 실력을 뽐내고 싶다”고 말했다. 7일 경기서 5회 2점홈런으로 대기록의 마침표를 찍은 뒤 강동우 코치와 기뻐하고 있는 정진호. 뉴스사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나를 다독였죠”

Mr. 베이스볼

사이클링히트사나이 두산 정진호

두산은 주전 야수층 견고해 가기 싫었다
2군 선수들 다들 열정적·자괴감 들때도
나에게 찾아온 운, 실력으로 연결 시킬 것
홈런공 챙겨준 자육이에겐 소고기 썼어요



정진호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출신교=인현초~선린중~유신고~중앙대 ▲키·몸무게=185cm·78kg(우투좌타) ▲프로 입단=2011년도 신인드래프트 두산(2차 5라운드 전체 38순위) ▲프로 경력=두산(2011~2012년)~상무(2012~2014년)~두산(2014년~) ▲입단 계약금=6000만원 ▲2017시즌 연봉=4700만원 ▲통산 성적=229경기 타율 0.244(352타수 86안타) 7홈런 36타점 78득점 ▲2017시즌 성적=28경기 타율 0.313(64타수 20안타) 3홈런 7타점 11득점(12일까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두산전에선 KBO리그에 길이 남을 기록 하나가 탄생했다. 역대 23번째이자 역사상 최초로 5회 만에 달성된 사이클링히트였다. 진기록의 주인공은 두산 외야수 정진호(29)다. 그는 이날 1회부터 5회까지 4타석에 들어서는 동안 2루타와 3루타, 안타, 홈런을 차례로 때려내고 KB O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아직 대다수 팬들에게 이름이 낯선 정진호는 올해로 입단 7년차를 맞는 늦깎이 기대주다. 2011년 데뷔해 매 시즌 1군 무대를 밟았을 만큼 잠재력 하나는 인정받았던 준족의 외야수. 그러나 그 앞에 놓인 주전의 벽은 쉽게 허물지 못했다. 내로라하는 외야수들이 차고 넘쳤던 두산이라는 팀 특성상 정진호는 만년 백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짙은 자괴감에 빠져 있던 시점, ‘사이클링히트’라는 행운이 그의 곁에 다가왔다. 정진호는 “지금 2군에 가면 나이로는 최고참급에 속한다. 그 때문에 자괴감이 드는 날도 많았다”고 고백한 뒤 “그러나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번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경기에서 내 기량을 펼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이클링히트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정진호를 10일 롯데전을 앞둔 울산 문수구장에서 만났다.

●“사이클링히트 덕분에 은사님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기록 달성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그날 상황이 궁금하다.

“사실 컨디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저 몸에 힘이 조금 붙은 시기였다. 2군에 오래 있었고, 1군에서도 경기에 많이 나가지 않은 터라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타격감은 그날 역시 특별히 좋지는 않았다. 그 대로였다고 할까. 경기 전날 비가 많이 내려 타격연습을 실내에서 진행했는데 별다르게 좋은 느낌은 없었다. 전날 기분 좋은 꿈도 꾸지 않았다.(웃음)”

-사이클링히트를 직접 본 적은 있었나.

“두 눈으로 처음 본 사이클링히트는 지난해 박건우가 달성한 때였다. (박)건우가 동생이긴 하지만 참 부럽기도 했고, 대단해보이기도 했다. 야구를 하면서 한 번 할까 말까한 기록도 아니고, 못한다고 봐야하는 기록 아닌가.”

-기록의 마침표였던 5회 홈런공을 삼성 우익수 구자욱이 직접 행거 화제가 됐다. 그날 저녁 돌이 회식을 했다고.

“(구)자욱이가 기특한 일을 해줬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 삼성 숙소 근처로 건나가 소

고기를 사줬다. 사실 자육이와는 상무에서 각 별하게 지냈다. 입대 동기(2012년)인데다가 서로 체형이 비슷해 공통된 운동이 많았다. 둘 다 마른 체형이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서로 꼭 붙어 다녔다.”

-서로 무슨 말을 하면서 밥을 먹었나.

“자육이가 ‘진기록 달성한’ 형이 부럽다’고 하기에 내가 ‘나보다 잘 치는 네가 더 부럽다’고 말해줬다.”

-축하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문자와 전화가 참 많이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락은 중앙대 시절 정기조 감독님과 통화였다. 정 감독님께선 3학년 때까지 학교에 계시다가 4학년을 앞두고 학교를 떠나셨다. 그러고 나서 프로 입단할 때 연락을 드린 뒤로 7년 가까이 안부를 여쭙지 못했다. 그런데 7일 경기가 끝나고 문자를 보내 주셨더라.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려 감사하다고 말씀 드렸다.”

-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실 듯하다.

“지금은 따로 나와 살고 있느라 통화만 드렸다. 앞으로는 더 자신 있게 하려고 말씀해주시더라. 곧 구단으로부터 사이클링히트 기념공을 받으면 본가에 전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김태형 감독은 당시 방송 인터뷰를 보고 ‘정진호가 말을 너무 못해 채널을 돌렸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더라.

“감독님께서 오해를 하신 듯하다.(웃음) 나도 그 기사를 접했다. 그래서 방송 인터뷰를 다시 돌려봤는데 이야기를 못한 느낌은 없었다.”

●“달리기 하나로 육상부도 재쳐조”

-야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친구랑 동네에서 테니스공을 갖고 캐치볼을 하고 있었는데 옆을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야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 인현초(서울 관악구) 야구부 학부모화장이었다. 그렇게 처음 야구부에 들어가게 됐다. 어차피 부모님께서도 맞벌이를 하였고, 누나도 학교가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 집에 있으면 혼자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런데 야구부에선 친구들도 많고, 간식도 줬기 때문에 서서히 재미가 들였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결국엔 내가 이겨 지금까지 오게 됐다.”

-야구선수로서 재능이 특별했는지 궁금하다.

“다른 능력은 잘 몰라도 달리기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 야구부에 들어간 뒤로도 초등학교 육상대회에 나갈 정도였다. 한 번은 학교 육

상부 친구들을 제치고 서울시대회 80m 종목에 출전했다. 예선 2위, 결선 2위로 은메달을 땀다. 딱 한 선수에게 두 번이나 밀렸다.”

-포지션은 처음부터 외야수였나.

“아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유격수와 투수를 봤다. 중학교로 넘어와선 계속 유격을 맡았고, 고등학교에선 3루를 잠시 보다가 외야로 전향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견수 포지션을 주로 소화했다.”

-프로필을 보니 대학 시절 대표팀 경력이 화려하다.

“대학교 다닐 때 대표팀만 4번을 나갔다. 세계야구선수권과 아시아야구선수권, 야구월드컵, 한미야구선수권 명단에 모두 뽑혔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야구 좀 했다.(웃음)”

●“왜 하필 두산이었나 하는 생각도…”

-2011년 두산이라는 팀에 입단했다.

“사실 신인드래프트 결과를 듣고 왜 하필 두산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대학 4학년 시절 주위에서 ‘어느 팀에 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두산만 아니면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두산이라는 팀은 주전 야수층이 견고해 피하고 싶었다. 결과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팀에 들어와서 보니 실제로도 벽은 높았다.

“당시 멤버가 참 화려했다. 이종욱~김현수~정수빈의 주전 외야진은 물론 이성열~임재철 선배 등 백업도 탄탄했다. 비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바깥에선 두산을 최수봉 야구라고 극찬한다. 2군 훈련지인 이전은 그 산실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안에서 느끼는 두산의 2군 분위기는 어떠한가.

“다들 열정적이다. 그러나 자괴감이 든 때도 많았다. 지금 이전에 가면 나이로는 내가 최고참급에 속한다. 대부분이 어린 후배들이다. 이전에 오래 있다 보면 야구에 재미가 줄어든 시절도 가끔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사이클링히트의 기운을 성적으로 이어가야한다.

“프로에서 지내다 보니 ‘운’이란 존재도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만약 그날 박건우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사이클링히트를 때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나에게 찾아온 행운을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최대한 많은 기회를 얻고 싶고, 또 그 기회를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

울산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찬스 즐기는 ‘LG 4번’ 양석환 “주자 있을때 더 집중 잘 된다”

시즌 타율 0.283볼구 득점권 타율 0.435



LG 양석환

양석환(26)은 현 LG의 4번타자다. 그는 외국인타자 루이스 히메네스가 부진했을 때부터 그의 대체요원으로 4번에 배치됐다. LG 양상문 감독은 “우리 팀에 4번을 칠 타자는 양석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양석환도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조금씩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11일 잠실 SK전에서 4번 3루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4안타 4타점을 폭발했다. 스스로는 “4번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잘 쳤다”며 겸연쩍게 웃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왜 중심타선에 배치돼야 하는지 증명해가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83…득점권 타율 0.435

4번타자는 상징적인 자리다. 팀 내 가장 잘 치는 타자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4번 타이틀을 지켰던 한 선수는 “4번에서 쳐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압박감이 크다. 실제 잘 치면 타자가 4번으로 이동한 뒤 흔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석환도 히메네스의 이탈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스트레스가 클 법도 한데 그는 “내가 느끼는 부담감은 크지 않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4번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원래 정신적으로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편이다. 시즌 타율은 낮지만 득점권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맡겨주신 것 같다”고 당당히 말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양석환의 방망이는 찬스 때 더 불타오른다. 12일까지 그의 시즌 타율은 0.283이지만 득점권 타율은 0.435로 높다.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 장타율(0.717), 출루율(0.536) 모두 뛰어났다. 주자가 있을 때 타율 0.337, 장타율 0.526으로 잘 쳤다.

●찬스를 즐길 줄 아는 타자 “더 집중”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석환은 강단이 있는 타자다. 한 선수는 “(양)석환이는 분명히 상대투수 공이 좋아 보이는데 덕아웃으로 돌아오면 ‘별 거 아니다. 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귀띔했다.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도 에이스 공을 공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당당히 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유가 있다. “투수를 싸우기도 전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며 “상대투수 공이 좋다고 내가 먼저 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없지 않나”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찬스를 즐길 줄도 안다. “주자가 있을 때 더 집중이 잘 된다. 득점권에 주자가 있을 때 어떻게 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타석에 들어선다”고 말할 정도다.

부진해도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성격도 있다. 그는 “그동안 팀 타선 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우리 팀 타자들 모두 능력이 있다. 아직 경험이 적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일 뿐”이라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판정 실랑이’ 오재원-문승훈 심판 2게임 출장정지·제재금 100만원



두산 오재원

경기 도중 판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두산 내야수 오재원(32)과 문승훈(51)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 KBO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열린 상벌위원회 결과 10일 울산 두산-롯데전 도중 스트라이크 판정을 두고 언쟁을 벌인 오재원과 문승훈 심판원에게 각각 2경기 출장정지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과 제재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오재원의 경우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문승훈 심판에 대해서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심판내규를 어겼다는 잘못을 물었다.

둘은 10일 경기에서 언성을 높인 바 있다. 5회초 타석에 들어선 오재원이 풀카운트 상황에서 맞은 상대투수 강동호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문승훈 주심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면서 실랑이가 전개됐다. 오재원은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어필했고, 문 주심은 오재원이 욕설을 섞은 채 항의했다며 곧바로 퇴장을 선언했다. 이 장면은 당시 TV 생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다음날에도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재원은 경기를 앞두고 심판실을 한 차례 방문했지만, 화해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덕아웃으로 향했다. 이어 구단 관계자들의 만류 끝에 다시 문승훈 심판을 찾아 30분간 대화를 나눴고, 결국 화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둘 모두 KBO의 징계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고봉준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